

佛事 전념 20년 불교미술전시관
 신일불사의 모든 것 책담의 향연입니다.
 ☎ 02)733-4800

현대불교

'98 자양강장제 부문 고객만족도 1위
원비·디

회장: 노태형/발행인: 김광삼/편집: 김광삼/논설: 고은/인쇄: 김규석/등록번호: 다-3379/110-170 서울시 중구 경지동 110-33/대표전화: 737-8881/편집국: 722-4162 FAX: 737-0698/광고국: 732-1522/구독신청: 737-8881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3년(서기 1999년) 11월 10일 수요일(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제 245호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집시다
신도교육의 부실

우리나라 종교 가운데 최고의 역사와 가장 많은 신도를 차지하는 불교. 하지만 20~30년간 절에 다녀도 불교가 도대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신도가 아직도 부지기수이고, 사회적인 역할도 타종교에 비해 여전히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왜일까? 그 원인은 바로 체계적인 신도교육을 받지 못해서이다. 제대로 된 교육이 없으니 신행이 기복 차원에 머무르고, 불교는 여전히 구시대적인 종교의 정형으로 인식되고 있음이 사실이다. 시대에 맞는 변화와 발전도 쉽게 이뤄지지 못했던 것이다.

조계종 포교원이 7월 포교 및 신도관련 종합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앞두고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경기지역 사찰 가운데 신도교육을 실시하는 곳은 26%에 불과했다. 나머지 74%의 사찰에서는 신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신도교육의 심각성을 드러내 보였다.

94년 종단개혁 이후 신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조계종은 98년을 신도교육의 해로 정하고 사찰마다 교리 예절 등 입문교육 6개월 과정을 의무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난 9월 신도교육을 기본-전문-지도자교육의 3단계 과정으로 나누고, 입문교육-입교의식-기본교육-오계수지의 기본교육과정을 거처도록 하는 내용의 신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신도교육에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했다.

그러나 법만 개정했다고 신도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신도교육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의 일차적인 주체인 승가 구성원이 교학에 대한 총일적 인식을 갖추어야 하고, 신도교육에 대한 책임감으로 앞선에 나서야 한다. 신도들도 스스로 불교공부에 대한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nia.com)

FM 101.9MHz
BBS 불교방송 후원회
 문의전화: (02)705-5560-1
 후원회ARS 전화: (02)700-0108
 은행지포 번호: 8003478번

“새 천년 인류 정신문화 이끈다” 한국선학회 내년3월 발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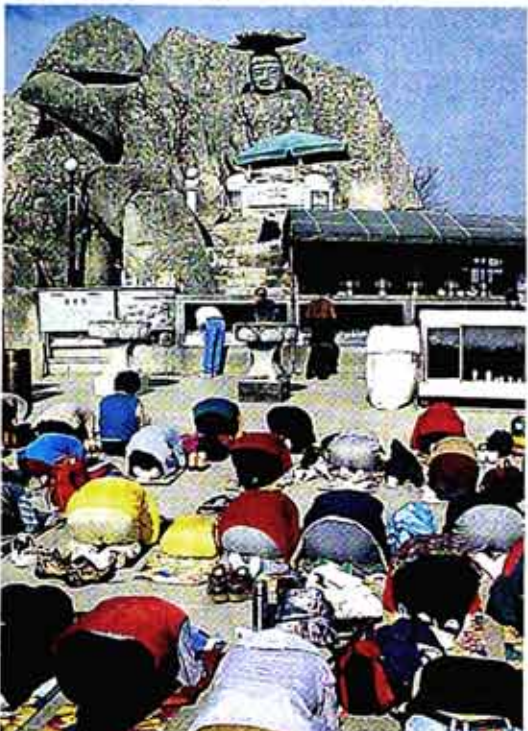
선학연구 '禪의 역할' 학술회의 준비

새 천년 인류 정신문화를 이끌 절실한 화두로 '선(禪)'이 주목받는 가운데 한국선의 새로운 중흥을 위한 '한국선학회'가 국내 처음으로 새 천년 3월 발족한다. 또 선의 대중화·생활화·현대화·세계화를 취지로 지난 1월 개원한 한국선학회(이사장 법장스님)도 '21세기와 한국선'을 주제로 새 천년 4월 학술회의를 대대적으로 개최하는 등 21세기 정신문화사를 이끌 한국선학계의 행보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한국선학회 준비위원회는 10월 30일 동국대 학술문화관에서 준비모임을 갖고 학회 회칙 제정, 운영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본격적인 창립준비에 착수했다.

한국선학회는 학문적 연구뿐만 아니라 선의 생활화와 세계화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21세기 지성사의 주류가 될 운영방안 마련에 진력하고 있다. △수행방법 고찰 △심리학·문학 등 유관학문에 대한 연구 △정치·경제·사회·문화·환경·교육 등 현대사회의 문제제점에 대한 선적 해법 모색 △외국학술단체와 교류 및 연구 △인턴십 홈페이지 개설 등이 주요 연구과제로, 무비·지오·해남스님 등 승가대학 강주, 현각·법신·종호스님 등 동국대 교수를 비롯 최병현(서울대 교수), 이경래(충남대 교수), 신규탁(연세대 교수), 양형진(고려대 교수), 이종철(정신문화연구원 교수) 등 2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창립에 앞서 한국선학회는 새 문명의 메시지를 담은 선권론 논문 목록을 11월말까지 공모한다. (02-2280-1135)

한국선학회연구원은 내년 4월 7일 수석사에서 한국선이란 무엇인가와 새로운 시대를 맞는 선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조명해 보는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박이문교수(포항공대)가 '뉴 밀레니엄의 문명 패러다임'을 주제로, 종호스님(동국대)이 '한국선의 특수성과 보편성', 심재룡교수(서울대)가 '2면으로 계속'



즐거는 수능기도 17일 대입수능시험을 앞두고 정성을 담은 수능기도를 올리는 학생들이 있다. 10월30일 조계종 총무원회의 단전 단수조치로 정회개혁회의측 스님들이 자진정수원에 따라 평화를 되찾은 것부터에 합력기원의 불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은호 기자)

지선-정대-장주스님 총무원장 후보등록

15일 조계사서 투표
고산스님 출마 포기
“산중으로 돌아간다”

조계종 제30대 총무원장선거에 전 백암사 주지 지선스님과 전 총무원장 정대스님, 총무원장 후보인 장주스님 등 세 스님이 출마했다. 지선스님은 후보등록 첫날인 5일, 정대스님은 6일, 장주스님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차례로 입후보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고산스님은 5일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산중으로 들어가 노구를 탁막하는 데 남은 여생을 보내겠다”며 출마 포기를 선언했다. 출마가 예상됐던 법장스님(수석사 주지)은 등록하지 않았다.

지선·정대 후보측은 잇따라 지지자 모임을 갖는 한편 기자 간담회와 회견을 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공약 및 프로그램 3면)

중앙선거위원회 측은 7일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총무원장선거법에 따라 입후보자 자격심사를 실시한 결과 세 스님 모두 결정사유가 없어 입후보등록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선거는 15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조계사 대웅전에서 실시되고 투표 종료 후 바로 개표된다.

정성은 기자 (swjung@buddhania.com)

“불교자주개혁 멈출 수 없다”

재가원로·단체대표 39인 성명발표

불교계 재가원로와 단체대표 39인은 4일 오전 11시 송원플라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종단의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국민과 불자대중에게 많은 자괴감과 우려를 끼친 것에 대해 재가불자의 원로 및 대표자들로서 뼈아픈 참회의 말을 드린다”고 밝혔다.

재가원로와 단체대표자들은 “재가부의 오만과 바로잡는 현관부의 개혁의원장, 백항기(조계종 법소원 및 연대소송운동을 통해 법적인 명예회복을 실현하겠다)며 재가불자의 신행혁신, 사부대중 참여에 의한 종단운영, 삼보정재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향후과제를 설명했다.

이와함께 “불교자주개혁수호를 위한 법불교서명운동에 5만여 명이 동참했다”며 “8일 전국의 5백개 사찰에서 불교자주개혁 선언 동시법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김중서(전 교육개혁위원장), 백항기(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주영문(행원문화재단 이사장)씨 등이 참석했다.

김원우 기자 (wkw@buddhania.com)

20세기 고승메달 2차분 출시
조계공사 - 현대불교 제작 보급

20세기를 마감하면서 근세 100년 한국사회의 불교계를 이끌어 온 고승 16인이 기념메달로 우리 곁에 다시 있습니다. 한국조계공사가 제작, 품질을 보증하는 고승기념메달은 동(銅)에 금도금을 입힌 국내 최대의 크기(지름 8cm)로 사찰 가정 사무실 등에서 늘 가까이 두고 친견할 수 있습니다. 고승기념메달은 20세기 한국불교 근대사의 정리를 뿐만 아니라, 큰스님들의 삶과 사상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불교계에 자생과 함께 희망과 용기를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1차 8분 제작에 이어 이번에 2차 8분을 제작 완료하고 일반에 보급하고 있으나, 많이 소장하시고 가족과 이웃에게 권하시기 바랍니다.

◇ 소장 스님:
 1차: 만공·용성·만해·한암·경봉·청담·고암·성철
 2차: 영호·동산·금오·효봉·묵담·탄허·자운·월산
 ◇ 보급: 날개 각 5만원·8분 1세트 40만원(500개 한정)
 ◇ 구입문의: 현대불교신문 (02)737-8881, 722-4162
 ◇ 은행계좌: 국민은행 006-01-0783-279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농협 053-01-236053(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다시 山中으로 돌아가며

비록 9개월 여의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뒤돌아보는 小納으로써는 결코 짧게만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난해 극심한 內訌을 겪고있는 종단의 현실이 못내 안타까워 본의 아니게 총무원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고 나서, 무너진 종단의 권위회복과 종단안정을 염원하는 중도대중의 壽命으로 알고 맡은 바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개 사법판결에 의하여 종단이 또다시 혼란과 혼동의 소용돌이에 휩싸이는 것을 보고 자신의 부덕함에 많은 고뇌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山中에 들어가 소남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음을 懺悔하고, 老耄를 琢磨하는 길이 그나마 중도 여러분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러서야 이러한 결심을 중도 여러분에게 피력하게 됨을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일찍이 山中에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마지막까지 所任을 다하기 위해서 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9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소남을 믿고 重策을 맡겨주신 중정 예하와 원로·대덕스님 그리고 중도대중들로부터 한량없는 恩德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불어 총무원 운영에 애정 어린 질책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총무원장스님과 본사주지스님, 그리고 본인을 도와 밤을 낮과 같이 밝히면서 宗務에 열과 성을 다했던 총무원 여러분에게도 무량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원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고 小納이 가장 역점을 두었던 부분은 종단의 질서와 안정 그리고 대 사회적 권위를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창한 것이 (初發心回復과 慈悲의 大衆化 운동)이었습니다.

초발심운동 발대식과 초발심 순회법회를 가지기도 하였고, 자비의 대중화운동을 기획하여 그 실행을 준비하던 차에 금번의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종단외적으로는 다종교사회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종교간의 화합이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천주교, 기독교 등 각 종교와 그리고 각 종단과도 협력과 우의를 다지기 위한 노력에도 많은 공을 드려왔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이에 더하여 종단 내적으로는 포교원장스님과 교육원장스님, 그리고 각 부실국장스님과 총무원장스님들의 도움으로 농지법시행규칙의 개정과 공원법의 정비, 중앙신도회 창립, 승가대 김포학사 건립과정의 부실문제 해결과 사업비 절감 근거를 확보하였고, 금강산순례를 비롯하여 종단안정에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 대하여 小納은 커다란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小納의 불찰과 부족함도 이에 못지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동안 중무행정을 수행하면서 얻은 작지만 소중한 보람들을 안고 山中에 들어가 老耄를 琢磨하는 데 남은 여생을 보내겠습니다. 小納은 이번 사법판결 이후 닦쳐온 혼란과 어려움을 중도여러분의 단합된 힘으로 지혜롭게 마무리해 나갈 수 있으리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처 다하지 못한 소임과 무거운 짐을 남겨두고 떠나는 듯하여 중도대중에게 한편의 송구함이 있으나, 다시 山中에 들어가 부처님전에 發願하고 懺悔하는 것으로 一佛弟子의 도리를 다 하고자 합니다.

국민여러분과 중도여러분 모두에게 부처님의 加被가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 2543년 11월 5일
소남 고산 합장